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1. 11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부이사관·서기관 퇴직인원은 과거 정부와 비교시 오히려 적거나 통상적 수준임

(중앙 11.1일자 「산업부 ‘공직 자괴감’ 3040에이스 줄사표」 보도 관련)

1. 기사내용

- ☐ 문재인 정부 들어 3·4급 61명 퇴직 러시, 산업부 과장급 퇴직이 다른 부처나 과거 보다 유독 많음
- ☐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('17.5월) 이후 올해 9월까지 산업부를 떠난 부이사관·서기관 공무원은 61명임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현 정부 출범 후 4년 6개월 간('17.5~현재) 퇴직한 부이사관·서기관은 61명으로,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오히려 적거나 통상적인 수준
 - 박근혜 정부 4년 3개월 간('13.2~'17.5) 부이사관·서기관 퇴직인원 수는 65명, 이명박 정부 5년간('08.2~'13.2)은 66명

직급	이명박 정부 ('08.2~'13.2)	박근혜 정부 ('13.2~'17.5)	현 정부 ('17.5~현재)
부이사관	44	47	44
서기관	22	18	17
합 계	66	65	61

- ☐ 중간 관리자의 퇴직은 현 정부 정책 수행과 무관한 개인신상에 따른 결정임

※ 문의 : 조익노 운영지원과장(044-203-5050) / 류진선 주무관(5063)